

# 재미동포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 가족주의가치와 물질주의가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Familism and Materialism of the Korean-Americans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육선희  
박사과정 남영주  
강사 성미애  
(주) 한국리서치  
연구원 신기영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l Univ.  
*Professor : Ok, Sun Wha*  
*ABD : Nam, Young Joo*  
*Lecturer : Sung, Miao*  
Hankook Research Co., Ltd  
*Associate Director : Shin, Ki Young*

## 〈목 차〉

I. 문제 제기	IV. 연구결과 및 해석
II. 가족주의가치와 물질주의가치 고찰	V. 결론 및 논의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milism and materialism of the Korean-Americans. A total 370 subject completed structured questionnaires.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Korean-Americans are found to support familism below average. But subgroup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for example) were discovered.

Second, the Korean-Americans are found not to support materialism. But, like familism, subgroup differences by several variables were discovered.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설 생활과학연구소에서 연구비 일부를 지원받았음.

Third, among the Korean-Americans, the urban Koreans and the rural Koreans, the rural Koreans are found to support familism most strongly. But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the Korean-Americans and the urban Koreans. The Korean-Americans are found not to support materialism.

- ◆ key word: 가족주의가치, 물질주의가치, 재미동포, 가치관

## I. 문제 제기

한 개인에게 있어 가치관은 사회현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규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나 가치관은 중요한 논의 주제였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전통 농경사회에서 근대 산업사회로 사회구조가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한 경우에는, 사회구조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와는 달리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사회적 변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체되거나 왜곡되는 양상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가족 내외의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족간의 가치 불일치로 인한 전반적인 가치관의 혼란도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원화 사회로 전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치관에 대한 규명과 방향탐색이 필요하다. 특히 가치관은 개인이 속해 있는 지역이나 하위 집단의 성격을 뚜렷이 규명해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으며, 태도, 행동, 선택의 기초가 되는 신념(최연실외 역 1995: 199)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집단별로 가치관의 경향을 살펴보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한국인의 가치관을 파악하여 생활의 제 측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 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는 데 합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오늘날 한민족이 살아가는 공간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늘날의 인류사회는 획일적인 가치관만이 존재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후기 산업사회이다. 이 시점에서 한민족의 다양한 하위 집단의 가치관을 파악하여 혼존하는 다

양성을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재미동포의 가치관을 가족주의가치와 물질주의가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가치를 통하여 재미동포의 가치관을 분석하게 된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족주의가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치관이며(육선화·성미애·신기영, 2000), 물질주의가치는 현재 탈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 탈물질주의적 생활관을 갖게 된다(정준, 1997)는 주장에 근거하여, 가족주의가치를 통하여 전통적 가치관의 보유정도를 파악하고, 물질주의가치를 통하여 탈근대사회 성원으로서의 가치보유 정도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와 최근의 탈물질주의적 가치(정준, 1997)를 어느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규명하여 재외동포의 가치보유 양상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세계 속의 한민족의 가치관 연구의 첫 단계로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재미동포의 가치관은 현재 한국인의 가치관과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민족의 다양한 하위집단이 보이는 가치관의 양상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첫 단계 작업으로서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가족주의가치와 물질주의가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1965년 미국의 이민법이 개정된 이후로 미국 전역에 이 백만이 넘는 재미동포가 이민자로 거주하고 있으며<sup>1)</sup>, 현재 재미동포는 미국 내 아시아계 미국인의 11%를 차지하고 있다(Kumagai, Pandac & Shunmugavelu, 2001). 이들의 경우 같은 한국인임에

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는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이 두드러진 미국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동포의 가치관 파악은 우리 사회에 존재되어 나타나는 전통성, 근대성, 탈근대적 가치 체계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탈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물질주의의 일변도의 가치관이 탈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견해(정준, 1997)가 있는데, 기회의 나라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과 양을 향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민을 선택한 재미동포들(최협·박찬웅, 1996: 22)이 물질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수준을 살펴본다면, 현재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의 가치관 변화를 예측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가치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의 하나인 보수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갈등이 다른 집단보다 재미동포 집단에서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즉 재미동포의 경우 미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도 한국을 떠날 때 가졌던 전통적인 가족주의가치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거나 성별에 따라서 상이한 가치관을 내면화한 한국 사회의 특성을 동일하게 보인다면, 다른 어떤 하위 집단보다 심각한 갈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미동포를 중심으로 가족주의가치와 물질주의가치 양상을 살펴보는 작업은 한국 사회의 가치 변화의 추세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뿐만 아니라, 생활의 장이 바뀌어 문화적 전이(轉移)에 적응해야 하는 우리 동포에게 유익한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이루어진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김광정, 1991; 이광규, 2000; 조정문, 1990; 최협·박찬웅, 1996; 허원무, 1991 등)은 재미동포생활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과 가족의 삶에 관련된 가치관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는 상이한 사회 문화적 전통을 가진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동포들의 가족주의가치와 물질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수준을 규명하는 것을 일차적

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가치지지 수준이 사회인 구학적 특성, 미국 이주 역사 및 자녀의 민족정체감 교육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도시 및 농촌 거주자와 재미동포의 가족주의가치와 물질주의가치를 비교하여, 세계 속의 한민족 공동체의 일원인 재미동포의 가치관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한국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재미동포들의 가족주의가치와 물질주의가치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재미동포들의 가족주의가치와 물질주의가치는 관련변수별(사회인구학적 변수, 미국 이주 역사 관련 변수, 자녀의 민족정체감 교육수준)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재미동포들의 가족주의가치와 물질주의가치는 한국의 도시 및 농촌 지역 거주자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이 같은 연구 작업은 재미동포의 생활과 의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 나아가 앞으로 한국의 가족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기초적인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 II. 가족주의가치와 물질주의가치 고찰

### 1. 재미동포와 가족주의가치

지난 50여 년 동안 서구의 기술과 문물, 이념과 사상 등을 단기간 내에 받아들여 엄청난 사회 변화를 경험한 우리 나라의 경우, 가족생활과 관련되는 이념은 상대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사회의 이념과 일치되지 않은 채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공존하게 되는(옥선화 외, 1996: 1)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근대적인 가치관은 가족주의

1) 재외동포 현황 통계는 재외동포 재단 홈페이지(<http://www.hanminjok.net>) 한민족네트워크 사이트를 참조.

가치로, 가족주의 가치는 가족구성원 개인보다 가족 집단을 우위에 두고 개인과 가족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손인수, 1978: 65; 옥선화, 1989) 가치관을 말한다.

이처럼 가족과 친족이 한 개인을 둘러싼 가장 의미 있는 유대집단으로서 기능하며 한 개인의 생존토대가 되었던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주의 가치가 중요한 사회 규범이 될 수 있으나 오늘날과 같이 가족 규모가 축소되며, 가족과 친족의 의미가 달라진 산업사회, 나아가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족주의 가치가 지배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재미동포들이 생활하는 미국사회는 합리적인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재미동포의 경우에는 가족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정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재미동포의 경우 1965년 하트-셀러법(Hart-Celler Act)이라고 불리는 개정된 이민법에 의해 이주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이민보다 이주의 역사가 짧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민 1세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가치관이 가지는 보수적인 특성으로 인해 이민 1세대의 경우에는 한국을 떠날 때 가졌던 전통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 이민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원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민이 많아 미국 땅에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때 가족과 같은 일차 집단 및 관계가 도움을 제공해 준다(최협·박찬웅, 1996: 79). 이와같이 재미동포가 새로운 지역에 정착할 때 가족과 친족이 생활 안정의 거점이 되었기 때문에 현대 한국 사회에서 보다 가족과 친족의 영향력을 오히려 높이 시작하고 전통적 가치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구촌의 여러 국가 중 다원주의와 개인의 욕구 존중이라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미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동포 집단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의 특징이라고 보아지는 가족주의 가치가 과연 그들의 물리적인 삶의 터전이라는 지역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그 지지도가 낮게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삶의 터전이라는 한국적인 요소를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2. 재미동포와 물질주의가치

최근 산업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경제적인 취득 행위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되면서 세상을 사는 의미 자체가 경제적인 풍요 여부에 의해 좌우되며, 인간의 내면적 가치의 상당 부분이 경제적 여건에 의해 지배당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가치관을 물질주의가치라고 부르는데, 물질주의가치는 물질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이나 복행을 판단하거나 부(富)나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산업사회가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 물질적 부(富)의 경쟁적인 축적과 과시적 소비가 세속적 가치관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인은 물질을 승상하게 되었고,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곧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개인적 타월성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임희섭, 1986: 56-57; 김태길, 1982: 168).

그러나 산업사회를 지나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서게 되면, 기본적 욕구 충족 차원의 물질 추구에 대해 회의를 보이면서, 과거의 물질주의의 일변도의 태도에서 벗어나 탈물질주의적 성향을 보인다는 주장(김경동, 1992; 옥선화 외 2인, 2000; 정준, 1997)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물질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측면은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시점에서는 탈물질주의가치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처럼 후기 산업사회가 진행될수록 단지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삶의 질을 추구한다고 본다면, 후기 산업사회의 선두 주자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동포들의 물질주의 성향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재미동포의 경우 기회의 나라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민을 선택했으며, 따라서 다른 지역의 이민자보다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앞서의 지적

(최협, 박찬웅, 1996: 22)을 본다면, 한국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미국 사회에 대한 동경에서 이주를 하였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이민이라면 미국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무관하게 물질주의적 성향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미동포의 물질주의의 가치를 살펴보는 작업은 후기 산업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인의 물질주의 성향을 예측하는 데 유익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재미동포 밀집거주지역<sup>2)</sup>으로 최대규모인 캘리포니아 주(전체 재미동포의 37.45%)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및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2000년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 수집은 재미동포들의 보편적인 집단이라고 판단<sup>3)</sup>된 한인교회나 한인성당, 그 외 한인단체를 통해 질문지를 배포하는 방식과,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재미동포 가정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370명을 분석하였다.

#### 2. 측정도구의 구성

##### 1) 가족주의가치 척도

가족주의가치 척도는 옥선화(1989)의 가족주의가치 척도의 축약형을 사용하였다. 가족주의가치 척도의 축약형 척도(옥선화 외 2인, 2000)는 1999년에 옥선화 외 5인에 의해 이루어졌던 도시 지역 조사 자

2) 재미동포의 밀집거주 지역(재외동포 세단 홈페이지: <http://www.hanminjok.net> 한민족네트워크 사이트)인 캘리포니아 남부(로스앤젤레스, 오렌지카운티 등)와 캘리포니아 북부(샌프란시스코, 팔로알토, 산호세, 산타클라라 등)에서 자료 수집을 하였음.

3) 선정된 집단의 대표성에 대한 자문은 재미동포들로부터 재미동포 중 영향력이 있는 분으로 추첨받은 4명의 자문위원의 조언을 참고하였음. 자문과정에서 보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특정 집단이나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료를 토대로 척도 문항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8문항으로 축약한 것이다. 척도내용은 가족우선성 영역에서 배우자선택 기준과 가족관심, 부계가문의 영속화에서 子의 의미, 가문의 발전, 부모공경 의식에서 장남의 부모동거, 의사결정 의존,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에서 부계지원, 친척지원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대단히 반대하는 경우에 1점, 대단히 찬성하는 경우에 5점을 주어, 점수의 범위는 8점에서부터 40점이 된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2) 물질주의가치 척도

물질주의가치 척도는 옥선화 외 5인(1999)에 의해 이루어진 도시 지역 조사 자료를 토대로 구성한 축약형 척도(옥선화 외 2인, 2000)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 영역은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을 물질에 의해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물질에 대한 가치부여와, 富나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중시하는 성향인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라는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문항 수는 모두 6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5점을 주어 점수의 범위는 6점에서부터 30점이 된다. 따라서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물질주의 가치 성향이 높다.

##### 3) 자녀의 민족정체감 교육 척도

자녀의 민족정체감 교육 척도는 재외동포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이광규, 1995; 최협·박찬웅, 1996; Min, 1988)을 기초로 하여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으며, 모두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1점, ‘매우 많이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5점을 주어,

전체 문항의 총점은 8점에서 40점이 된다. 따라서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민족정체감 교육 수준이 높은 것이다.

### 3.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척도는 가족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된 5인의 가족학자들간의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그 내용을 검증한 후 구성하였다. 우선 기본 주제를 선정한 후, 각 주제에 맞는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하여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가족주의가치 척도는 .79, 물질주의가치 척도는 .77, 자녀의 민족정체감교육 척도는 .74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미동포의 가족주의가치와 물질주의가치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주의가치와 물질주의가치의 관련변수별 차이를 파악하고, 재미동포의 가치관과 한국의 도시 및 농촌 지역 거주자의 가치관<sup>4)</sup>을 비교하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과 추후검증, 그리고 t-test를 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32.2%, 여성이 67.8%이며,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15.1%, 40대가 60.9%, 50대가 14.6%, 60대 이상이 9.4%이다. 그

리고 교육수준별 분포는 고졸이 7.7%, 대학중퇴가 11.0%, 대졸이 61.5%, 대학원졸이 19.8%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의 학력이 높다는 선행연구(최협·박찬웅, 1996: 77)의 보고와 일치한다. 조사대상자의 연간 소득수준은 \$50,000 미만이 33.8%, \$50,000~\$100,000이 39.5%, \$100,000 이상이 26.7%를 차지하는 등 중산층의 꿈을 가지고 시작한 이주에서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지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초혼인 경우가 90.5%, 재혼인 경우가 1.7%, 이혼인 경우가 4.2%, 사별인 경우가 3.6%였다. 응답자들의 가족형태를 보면 핵가족이 75.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부계확대가족이 5.0%, 모계확대가족이 3.0%, 부부가족이 7.2%, 그리고 기타에 해당되는 가족(독신가족, 핵가족에 가구주의 조카나 동생이 포함되는 경우)이 9.4%를 차지하였다.

직종을 살펴보면, 자영업이 27.0%, 전문직이 22.8%, 사무직이 14.2%, 기술·서비스직이 7.7%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28.3%는 기타로 분류하였는데 이들은 대체로 전업주부이나 성직자, 군인, 대학원생 등이 포함되었다.

미국 이주 역사를 살펴보면, 본인이 처음 이주한 이민 1세대가 78.7%, 한국에서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이민온 이민 1.5세대가 21.3%였다.

미국 이주 시기를 살펴보면, 1970년대 이전에 이민 온 경우가 33.3%, 1980년대에 이민 온 경우가 47.1%, 1990년대에 이민 온 경우가 19.6%였다.

이민 동기를 복수 응답으로 살펴본 결과, 먼저 이민 온 가족이나 친척의 권유가 3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미국이 생활환경이 좋아서가 29.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업이나 장래를 위해 이민한 경우가 28.9%, 자녀교육과 장래를 위해서가 23.0%, 미국이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안정되어서가 9.7%, 그리고 기타가 16.2%였다.

4) 한국의 도시/농촌 거주자와의 비교분석은 같은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육선희 외 2인, 2000)자료를 이용하여 F검증을 하였음.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sup>5)</sup>

특 성	집 단	빈도(%)
성별	남성 여성	119(32.2) 251(67.8)
연령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55(15.1) 221(60.9) 53(14.6) 34( 9.4)
교육수준	고졸 대중퇴 대학 대학원졸	27( 7.7) 39(11.0) 217(61.5) 70(19.8)
소득수준	\$ 50,000 미만 \$ 50,000-100,000 \$ 100,000 이상	114(33.8) 133(39.5) 90(26.7)
결혼지위	초혼 재혼 이혼 사별	325(90.5) 6( 1.7) 15( 4.2) 13( 3.6)
가족형태	핵가족 부계확대가족 모계확대가족 부부가족 기타	273(75.4) 18( 5.0) 11( 3.0) 26( 7.2) 34( 9.4)
직종	전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술·서비스직 기타	53(22.8) 33(14.2) 63(27.0) 18( 7.7) 66(28.3)
미국 이주 역사	1세대 1.5세대	258(78.7) 70(21.3)
미국 이주 시기	1970년대 이전 1980년대 1990년대	119(33.3) 168(47.1) 70(19.6)
이민동기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업/장래 위해서 자녀교육과 장래 위해서 미국이 생활환경이 좋아서 먼저 이민온 가족/친척의 권유로 미국이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안정 기타	128(28.9) 85(23.0) 108(29.2) 144(38.9) 36( 9.7) 60(16.2)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전체 응답자의 수가 일치하지 않음.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재미동포의 가족주의가치와 물질주의가치의 전반적 경향

#### 1) 재미동포의 가족주의가치의 전반적 경향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동포들은 가족주의가치에 대해 보통 수준 이하의 지지도를 보였다(척도의 범위: 8점-40점, 평균값: 22.7점). 따라서 재미동포들은 전반적인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재미동포의 가족주의가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은 문항 즉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웃이나 친구보다는 친척이 더 큰 의지가 된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나 자신보다 내 가족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자손은 조상이 욕되지 않도록 가문을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인간관계의 기본적 친밀감과 가족의 발전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기는 것은 우리 가족 뿐 아니라 가문 전체의 불행이다’, ‘장남은 결혼하면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도시 지역 및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비교한 연구(옥선화 외 2인, 2000)에서 도시 지역 거주자가 부계 가문의 영속화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보이는 결과와 연결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재미동포들은 인간관계의 측면에 대해서는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여건과 괴리되는 남아선호나 부처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여 전반적으로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 2) 재미동포의 물질주의가치의 전반적인 경향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동포들은 물질주의가치를 보통 수준 이하로 지지하고 있었다(척도의 범위: 6점-30점, 평균값: 15.5점). 그러나 문

항별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생을 즐기는 데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싶다’에 대해서만은 보통 이상의 지지도를 보였으나 그 외 다른 문항에서는 물질주의성향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사용하는 물건의 상표명으로, 그 사람의 지위를 알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뚜렷한 반대의 뜻을 보여 물질 소유를 중시하는 성향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후기 산업사회의 특성을 보이는 미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동포들은 물질에 대한 가치부여나 소유욕을 보이기 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으로 물질을 평가하고 있으며, 딸물질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관련변수에 따른 재미동포의 가족주의가치와 물질주의가치 차이

#### 1) 재미동포의 가족주의가치 차이

##### (1) 재미동포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가족주의가치 차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동포들은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2〉에 제시된 것처럼,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집단별 차이를 보였다.

하위 집단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性)에 따라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수준에서 차이를 보여, 여성에 비해 남성은 가족주의가치에 대해 중간 수준의 지지도를 보였으나 여성은 지지하는 정도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가족주의 가치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옥선화 외 5인, 1998; 옥선화 외 2인, 2000; 최재석, 197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재미동포 남성의 경우 가족주의가치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비록 물리적으로는 미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성 우월적인 지위를 중요시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유파사상에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연령 집단에 따라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수준에서 차이를 보여, 30대인 재미동포는 가

〈표 2〉 재미동포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가족주의가치 차이

변 수		평균값(표준편차)	t 또는 F 값	Duncan's
성별	남성 여성	24.20( 6.39) 21.99( 5.39)	t=3.11***	
연령	30대	21.38( 4.82)	F=4.10**	a
	40대	22.43( 5.72)		ab
	50대	23.94( 5.82)		ab
	60대 이상	26.00( 7.40)		b
교육수준	고졸 이하 초대졸 이상	24.37( 5.56) 22.26( 5.88)	t=2.52**	
소득수준	\$ 50,000 미만	24.74( 5.97)	F=12.75***	a
	\$ 50,000~100,000	22.11( 5.95)		b
	\$ 100,000 이상	20.67( 4.86)		b
결혼지위	초혼	22.62( 5.81)	F=.95	
	재혼	21.00( 7.07)		
	이혼	23.31( 5.78)		
	사별	26.00( 6.93)		
가족형태	핵가족	22.60( 5.69)	F=2.54*	ab
	부계화대가족	26.35( 6.36)		a
	모계화대가족	20.20( 5.61)		b
	부부가족	21.24( 5.59)		b
	기타	23.12( 6.65)		ab
직종	전문직	21.08( 5.81)	F=2.81	
	사무직	23.94( 5.44)		
	자영업	24.05( 6.77)		
	기술·서비스직	22.18( 7.35)		
	기타	21.33( 4.88)		

족주의가치를 지지하지 않았으나 60대 재미동포는 가족주의가치를 약간 지지하여 재미동포 사회에서도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를 분명히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연령집단간 가치 차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가치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김경동, 1992; 김태길, 1982; 육선화 외 5인, 1998; 육선화 외 2인, 2000; 최재석, 1979)과 일치하는 것으로, 특히 재미동포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한국적인 것을 추구하고 유지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함을 면접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수준에서 차이를 보여, 고졸 이하 집단이 초대졸 이상 집

단보다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치관에 관한 연구들(김경동, 1992; 김태길, 1982; 육선화, 1989; 육선화 외 5인, 1998; 육선화 외 2인, 2000; 최재석, 1979 등)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공식 교육기관에서 지향하는 가치관이 보다 근대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수준에서 차이를 보여, \$50,000 미만 집단이 \$50,000 이상 집단보다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수준이 높았으며, \$50,000 미만 집단은 보통 수준으로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 보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향한다는 선행연구(옥선희 외 2인, 2000)와 일치한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도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부계확대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모계확대가족이나 부부가족을 이루는 경우에 비해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수준이 높았으며, 부계확대가족을 이루는 경우는 보통 수준 이상의 지지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사회에서 부계확대가족을 이루는 경우는 가족원들 사이에도 가족주의가치가 어느 정도 지지되거나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결혼지위와 직업형태에 따라서는 가족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수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 재미동포의 미국 이주 역사 관련 변수에 따른 가족주의가치 차이

재미동포의 미국 이주 역사와 관련된 변수에 따라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자 미국 이주 역사, 미국 이주 연도에 따

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표 3〉에 제시된 결과처럼, 하위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3) 재미동포의 자녀의 민족정체감교육<sup>6)</sup> 수준에 따른 가족주의가치 차이

재미동포의 자녀의 민족정체감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주의가치를 살펴본 결과, 자녀의 민족정체감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정도가 약간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민족 정체감 형성 및 유지는 무엇보다도 한국적인 문화와 의식의 전통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연구보고(최협·박찬웅, 1996)와 일치되는 경향이다. 자녀가 한국인이라는 민족 정체감을 상실하지 않게 하려는 재미동포들은 가족주의가치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을 유지하려 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는 좀 더 드러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민족정체감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도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수준은 보통이하로 가족주의가치가 갖는 전통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재미동포의 미국 이주 역사 관련 변수에 따른 가족주의가치 차이

변 수		평균값(표준편차)	t 또는 F 값	Duncan's
미국이주역사	1세대	22.84( 5.94)	t=.60	
	1.5세대	22.38( 5.34)		
미국이주연도	1979년 이전	22.25( 6.01)	F=.90	
	1980년대	22.72( 5.86)		
	1990년대	23.46( 5.42)		

〈표 4〉 재미동포의 자녀의 민족정체감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 차이

구 분	평균값(표준편차)	t 값
자녀의 민족정체감 교육수준	높은 집단	23.47( 5.63)
	낮은 집단	21.62( 5.95)

6) 재미동포의 자녀의 민족정체감 교육수준은 전체 응답자의 점수로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차이를 F검증한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자녀의 민족정체감 교육수준 상위 30%에 해당하는 집단과 하위 30%에 해당하는 집단을 구분하여 가족주의차이를 검증하였다.

## 2) 재미동포의 물질주의가치 차이

## (1) 재미동포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물질주의가치 차이

재미동포는 물질주의가치를 지지하지 않았으나 하위집단별로 차이를 보여, 〈표 5〉에 제시된 결과처럼, 연령에 따라서 물질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60대가 30대에 비해 물질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정도가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도시 및 농촌 지역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물질주의가치를 살펴본 선행연구(옥선화 외 2인, 2000)와

상반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고연령층 집단이 저연령층 집단보다 물질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수준이 높았으며, 지지하는 수준에 있어서도 고연령층 집단은 물질주의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이한 결과를 보인 것은 재미동포의 경우 주로 도시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이 미국의 도시로 이주하였기 때문에(최협·박찬웅, 1996: 77) 다른 이민자보다 적응을 잘 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 거주한 고연령층의 경우 미국 사회에서 표방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한 정도도 높다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 재미동포의 물질주의 가치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차이

변수		평균값(표준편차)	t 또는 F 값	Duncan's
성별	남성 여성	14.99( 4.72) 15.71( 4.36)	t=-1.42	
연령	30대	15.54( 4.72)		a
	40대	15.76( 4.23)	F=2.30*	a
	50대	15.02( 4.09)		ab
	60대 이상	13.55( 5.72)		b
교육수준	고졸 이하 초대졸 이상	15.24( 4.22) 15.50( 4.46)	t=-.41	
소득수준	\$ 30,000-50,000	15.28( 4.66)		
	\$ 50,000-100,000	15.55( 4.35)	F=.53	
	\$ 100,000 이상	15.92( 4.24)		
결혼지위	초혼	15.56( 4.38)		
	재혼	13.00( 6.36)		
	이혼	15.64( 3.65)	F=1.30	
	사별	13.40( 5.82)		
가족형태	핵가족	15.70( 4.31)		
	부계 확대가족	14.33( 4.70)		
	모계 확대가족	15.36( 3.32)	F=.99	
	단독·부부가족	14.25( 5.25)		
	기타	15.49( 5.06)		
직종	전문직	14.45( 4.37)		a
	사무직	14.75( 4.02)		ab
	자영업	16.65( 4.26)		bc
	기술·서비스직	17.11( 4.46)	F= 2.80*	c
	기타	15.77( 4.16)		abc

또한 직종에 따라서 물질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영업이나 기술·서비스직 종사자들에 비해 물질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물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은 보다 높은 물질적 향유를 위해서 이민을 결정하기보다는 선진화된 미국 문화권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쌓고자 하는 욕구에서 이민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물질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수준이 낮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성(性), 교육수준, 결혼지위,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물질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2) 재미동포의 미국 이주 역사 관련변수별 물질주의 가치 차이

재미동포의 미국 이주 역사와 관련해서 물질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정도가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표 6〉에 제시된 결과처럼, 미국 이주 연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즉 1979년 이전에 이주를 한 재미동포 집단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주를 한 재미동포 집단보다 물질주의 가치

를 지지하는 정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연령층에서 탈물질주의 성향을 보이는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수록 미국 사회에서 표방하는 탈물질주의 가치를 내면화한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거주 기간이 미국 사회에서의 적용 수준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 1.5세대와 1세대간의 물질주의 가치 차이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3) 재미동포의 자녀의 민족정체감 교육수준에 따른 물질주의 가치 차이

재미동포의 자녀의 민족정체감 교육수준에 따른 물질주의 가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7〉에 제시된 결과처럼 자녀의 민족정체감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 물질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4. 재미동포 및 한국의 도시·농촌 거주자의 가족주의 가치와 물질주의 가치 비교

##### 1) 재미동포 및 한국의 도시·농촌 거주자의 가족주의 가치 비교

재미동포 및 한국의 도시·농촌 거주자의 가족주

〈표 6〉 재미동포의 미국 이주 역사 관련변수별 물질주의 가치 차이

변수		평균값(표준편차)	t 또는 F 값	Duncan's
미국이주역사	1세대	15.59( 4.44)	t=.91	
	1.5세대	15.79( 4.31)		
미국이주연도	1979년 이전	14.54( 4.23)	F=4.11**	a
	1980년대	15.89( 4.58)		b
	1990년대	16.17( 4.58)		b

〈표 7〉 재미동포의 자녀의 민족정체감 교육수준에 따른 물질주의 가치 차이

구분	평균값(표준편차)	t 값
자녀의 민족정체감 교육수준		
	높은 집단 낮은 집단	15.29( 4.29) 15.88( 4.35)

의 가치를 비교한 결과, 〈표 8〉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한국의 농촌 지역 거주자가 도시 지역 거주자나 재미동포에 비해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정도가 높았다. 즉 농촌 지역 거주자는 가족주의가치를 중간 수준 이상으로 지지하였으나 도시 지역 거주자와 재미동포는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지 않았다.<sup>7)</sup>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세 집단 중에서 보다 전통적인 색채가 강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아직도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에는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재미동포가 보여주었듯이 일반적인 인간관계 수준에서만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할 것을 예측 할 수 있다.

#### 2) 재미동포 및 한국의 도시·농촌 거주자의 물질주의가치 비교

재미동포와 한국의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물질주의 가치를 비교한 결과, 〈표 9〉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재미동포가 한국의 도시 및 농촌 거주자에 비해 물질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수준이 낮았다. 즉 한

국의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경우 물질주의가치를 중간 수준 정도로 지지하였으나 재미동포는 물질주의가치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도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을 물질에 의해 판단하거나 물질 소유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사적인 소유 지향의 물질주의가치에서 벗어나 점차 물질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를 보이는 탈물질주의적 경향을 추구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 V. 결론 및 논의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동포들의 경우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지지도는 비교적 낮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간관계 수준에서는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고 있으나 부계가족의 원리와 부계가문의 영속성에 대해서는 반대를 보인다.

둘째, 재미동포들은 물질적인 부의 축적과 물질 소유에 대한 의미 부여를 상징하는 물질주의가치를 지

〈표 8〉 재미동포 및 한국의 도시·농촌 거주자의 가족주의가치 비교<sup>7)</sup>

지역/변수	평균값(표준편차) (중간값 : 24)	F값	Duncan's
도 시	22.83(5.44)		a
농 촌	26.30(6.28)	68.19***	b
재미동포	22.71(5.82)		a

〈표 9〉 재미동포 및 한국의 도시·농촌 거주자의 물질주의가치 비교

지역/변수	평균값(표준편차) (중간값 : 18)	F값	Duncan's
도 시	18.56(4.32)		a
농 촌	18.66(4.47)	70.19***	a
재미동포	15.48(4.48)		b

7) 도시 및 농촌 지역 거주자의 가족주의가치 및 물질주의가치 점수는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 비교 연구(옥선희 외 2인, 2000)에서 제시된 자료이다.

지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미동포는 이미 기본적인 수준의 물질적인 욕구가 충족된 풍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 소유나 과시 소비 등 물질의 외형적 의미 자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 이면의 합리성이나 실용성을 추구하거나 물질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제로 봄을 알 수 있다.

셋째, 재미동포들은 가족주의 가치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위집단별로 차이를 보여 남성, 60대 이상 집단, 고졸 이하 집단, \$50,000 미만 집단, 부계 확대가족을 이룬 경우에는 가족주의 가치를 보통 수준이상으로 지지한다.

넷째, 재미동포들은 탈물질주의 가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여, 연령에서는 60대 이상 고연령층이, 직종에서는 전문직 종사자가, 미국 이주 역사와 관련해서는 1979년 이전에 이주 한 경우가 보다 더 탈물질주의 가치를 보인다.

다섯째, 재미동포들과 한국의 도시 및 농촌 지역 거주자의 가족주의 가치를 비교한 결과, 세 집단 중 한국의 농촌 지역 거주자는 가족주의 가치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앞의 결과에서도 밝혔듯이 세 집단 중에서 보다 전통적인 색채가 강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아직도 가족주의 가치를 지지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에는 한국 사회에서도 가족주의 가치를 지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재미동포가 보여주었듯이 일반적인 인간관계 수준에서만 가족주의 가치를 지지할 것도 예상할 수 있다.

여섯째, 재미동포 및 한국의 도시·농촌 지역 거주자의 물질주의 가치 지지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물질주의 가치 지지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도시·농촌 지역 거주자는 보통 수준의 물질주의 가치 지지수준을 보였으나 재미동포 집단은 물질주의 가치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이미 고도의 안정된 경제성장을 이룬 미국 사회에는 부의 축적을 어느 정도 실현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질의 단순한 소유보다는 번 돈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어떻게 소비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진지하게 반추해 보는 탈물질주의 사회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경향은 한국 사회에서도 조만간 나타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도시 및 농촌 지역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재미동포 사회에서도 하위 집단에 따라 상이한 가치관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재미동포 사회 내에서도 하위 집단별 가치관의 차이를 파악하여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주의 가치에 있어서 남성 집단과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가족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가치관 차이는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가족 내 부부 역할 분담 문제 및 세대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재미동포의 경우 가족주의 가치와 관련해서는 근대적 양상을, 그리고 물질주의 가치와 관련해서는 탈근대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조만간 한국 사회도 근대적, 탈근대적 가치관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가치관 불일치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같은 한국인이면서도 미국이라는 상이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재미동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내 가치관의 변화추세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국 사회에서 재미동포가 앞으로 어떤 특징을 지닌 집단으로 그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인의 가치관의 실재를 보다 폭넓게 파악하고, 재미동포 가족이 한 민족공동체에서 어떤 역동기제로 기능할 것인가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민족적인 유대감을 잊지 않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할 때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김경동(1992).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변화의 경험적 추적-*. 서울: 박영사.

- 김광정(1991). 미국 한인의 지위와 활약상.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세계속의 한국문화. 제1회 세계한  
민족 학술대회 제4주제 발표논문집. 129-140.
- 김태길(1982). 한국인의 가치관연구. 서울: 문음사.
- 손인수(1978). 한국인의 가치관: 교육가치의 재발견.  
서울: 문음사.
-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옥선화(1996). 가족생활의 변화. 이기영. 이은영. 옥  
선화. 백희영. 홍형옥. 광복후 가정생활의 변  
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39.
- 옥선화 · 김주희 · 박혜인 · 신화용 · 한경혜 · 고선주  
(1998).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 :  
서울 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지 36(11), 15-25.
- 옥선화 · 김주희 · 박혜인 · 신화용 · 한경혜 · 고선주  
(2000).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I: 농  
촌 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지 38(10), 157-180.
- 옥선화, 성미애, 신기영(2000). 도시 및 농촌 거주자  
의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 비교. 대한가정  
학회지 38(9), 1-17.
- 외교통상부(1999). 해외동포현황.
- 이광규(1995). 세계화와 재외 한인가족. 가족학논집  
7, 325-332.
- 이광규(2000). 재외동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임희섭(1986).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정음사.
- 재외동포재단(2000). 세계한민족분포현황. <http://www.hanminjok.net>
- 정 준(1997). 가치관의 변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변  
모. 서울: 한국소비자보호원.
- 조정문(1990). 미국내 한국계 이민자의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24집, 87-112.
- 최재석(1979).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경문사.
- 최 혁, 박찬웅(1996). 세계의 한민족. 미국 · 캐나다.  
서울: 통일원
- 허원무(1990). 재미한국이민의 1.5세대 현상. 재외한  
인연구(1), 137-154. 서울: 재외한인연구회.
- Burr, W. R., Day, R. D. & Bahr, K. S.(1992). 최연  
실 외 역(1995). 새로 보는 가족관계학. 서울:  
하우.
- Kumagai, K., Pandac, L. & Shunmugavelu, P.(2001).  
Asian population in U.S. surges, but unevenly.  
(2001, May 15). *latimes.com*. <http://www.latimes.com/news/state/20010515/t000040746.html>
- Min Puyng Gap(1988). The Korean American Family.  
In C. H. Mindel, R. W. Habenstein, R. Wright,  
Jr. : *Ethnic Families in America -Patterns and  
Variations*. New Jersey : Prentice Hall.